

“무주형 기본소득, 국가적 완성 노력”

황인홍 무주군수 예비후보, “정부 추경 확보로 국가 표준 될 것”

황인홍 무주군수 예비후보(사진)가 6일,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고 ‘기본소득 무주, 대도약 무주’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황인홍 예비후보는 이날 개소식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소식을 전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무주를 직접 언급한 사실을 강조했다. 황 예비후보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무주처럼 기본소득에 열성적인

지자체가 없을 수 없다”며 “추경에 무주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하라”고 지시한 일화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공식화했다. 또 준비로 추진하던 ‘무주형 기본소득’을 국가 시범사업으로 격상시켜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무주 대도약을 이끌 세부 전략도 발표했다. 황 예비후보는 “현대로템 유치를 시작으로 관련 기업들을 추가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며, 우주항공 특성화 학교를 세워 지역 아이들이 무주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겠다”며 “국제대권도고등학교의 안착 지원과 태권도인재양성센터를 건립해 사립이 부족한 태권도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반딧불축제에 글로벌 환경축제로 격상시키겠다”고 말했다. 농업 대도약에서는 “스마트 미래형 사과원 구축과 안정적인 인력 수급 체계를 통해 농민의 팍팍함이 실질적인 소득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황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정부도 응답한 이 거대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검증된 추진력으로 무주 대도약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무주=손흥기 기자

레드푸드·스마트농업 활성화 도모

장수군, 시군구 연구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장수군은 레드푸드 및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시군구 연구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오는 10일까지 진행하고, 이에 따른 사업설명회를 지난 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 관계자 20개소가 참석해 사업 내용과 지원 절차,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군은 현장 중심 설명을 통해 기업들

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내 유망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장수군이 주관하고 전북테크노파크와 캡티브중합기술원이 수행하는 이번 사업의 총 지원 규모는 약 4억900만원이며, 기업당 연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시군구 연구산업 육성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행되어 올해 2년 차를 맞았으며, 지역 산업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군은 2025년 17개 기업이 참여해 △창업기업 경영·기술 컨설팅 △농기계 신 에너지 기술 컨설팅 △제품 고급화 △마케팅 △시험분석·인증 △지식재산권 획득 △농기계 신 기술애로 지원 등 총 31개 과제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참여기업의 총매출액은 전년 대비 11억원 증가했으며, 신규 고용 15명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고판호 기자

이경영 진안군수 권한대행,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

진안군은 6일 이경영 진안군수 권한대행이 군민 생활과 밀접한 관내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 안전관리 실태, 주민 편의 확보 방안 등을 꼼꼼히 점검하며 현장 행정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한 사업장은 △운일안반일암 조형물, △부귀면 부천마을 안길도로 정비사업 △농업회사법인 문스빈, △마이산 4책 에너지 충전소 조성사업 등 총 4개소이다.

먼저 운일안반일암 조형물 사업은 구름다리 일원에 상징 조형물과 포토존을 조성한 사업으로, 관광 콘텐츠 확충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부천마을 안길도로 정비사업은 마을 도로를 정비하여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5월 준공을 앞두고 추진 상황에 대해 점검했다.

농업회사법인 문스빈은 전라작물 산업화를 통해 지역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 지원을 기반으로 향후 가공·체험·관광 연계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마이산 4책 에너지 충전소 조성사업은 감성 힐링과 체험형 관광을 결합한 관광시설로, 감성충전소(힐링정원)와 열정충전소(카트체험장) 조성을 통해 관광객 체류시간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간부모시는날 근절선언

장수군은 6일 군청 회의실에서 공식 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간부 모시는날’ 근절 선언 및 다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먼저 간부 모시는날 근절 선언서 낭독이 진행됐으며, 이어 간부공무원들이 해당 관행 근절에 솔선수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에 자필 서명했다.

참석자들은 선언과 서약을 통해 불필요한 의전과 관행을 없애고,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또한 조직문화 개선의 4대 핵심 가치인 ‘자율·존중·평등·소통’ 피켓을 들고 단체 퍼포먼스와 기념촬영을 진행하며 수평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문화 정착 의지를 함께 표명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은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를 맞아 봄철 대표 관광 콘텐츠로 진안고원 벚꽃 여행을 추천했다. 용담호 벚꽃 전경.

“진안고원 벚꽃 여행 떠나요”

진안군, 타 지역보다 개화 시기 늦어 차별화된 관광지로 주목

진안군은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를 맞아 봄철 대표 관광 콘텐츠로 진안고원 벚꽃 여행을 추천했다. 평균 해발고도 350m의 진안고원은 타 지역보다 벚꽃 개화 시기가 늦어, 전국 주요 벚꽃 명소의 꽃이 진 뒤에 도 만개한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혼잡한 인파를 피해 한적하고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봄 정취를 만끽할 수 있어 차별화된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진안의 벚꽃 관광은 차량 이동과 도보 관광을 모두 즐길 수 있다는 점에 매력력을 더한다.

대표적인 드라이브 코스로는 용담호 일원의 벚꽃길과 데미샘 방면 코스다. 특히 용담호 벚꽃길은 호수와 어우러진 풍경이 인상적으로 현재 벚꽃이 만개해 있으며 이번 주말까지 절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운면 데미샘 방면은 청정 자연 속 조용한 드라이브를 즐기기에 적합하다. 굽이진 도로를 따라 이어진 벚꽃길은 차량 밖 풍경만으로도 봄의 정취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도보 관광을 원하는 방문객에게는 마이산 벚꽃길에 대표 명소로 꼽힌다. 수령이 오래된 벚나무들이 만들어 낸

벚꽃 터널 아래에서 산책을 즐길 수 있으며, 완만한 구간으로 조성돼 가족 단위 관광객은 물론 어르신과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지로 운영되고 있다.

마이산 일원의 벚꽃은 이번 주 중반 이후 개화를 시작해 주말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돼, 장소별로 다양한 벚꽃 풍경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마이산의 이색적인 경관과 어우러진 벚꽃 풍경은 봄철 대표 촬영 명소로도 인기를 끌며 각종 드라마에서 많이 소개됐다.

벚꽃을 따라 진안에 왔다면 하룻밤 묵어가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이다. 진안군은 관광객 체류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혜택과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진안고원 스마트관광 여행경비 지원과 '1박 2만 행복숙박' 사업을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여행 경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더불어 관광지 곳곳을 체험하면서 알짜배기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스텝 투어'와 진안 관내 스텝 촬영 시 촬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스텝촬영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맞춤형 지원'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 추진

무주군이 지역 청소년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2026년 지역 으뜸인재육성사업' 추진에 나섰다.

6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중·고등학생과 무주군에 주소를 둔 동일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온라인 강의 수강료 92명, 학원비 92명 등 총 184명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50만 원 이 내다.

교과와 비교과, 어학, IT, 진로·직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 맞춤형 지원

이 가능하다. 신청은 일반 대상자의 경우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 가정 학생은 학교장 등 기관 추천을 통해 우선 선발된다.

최종 대상자는 4월 22일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신청된 학생은 무주군평생교육원 누리집에 참여 신청서 등을 등록해야 한다.

/무주=손흥기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주말·휴일 운영

진안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적기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농번기 기간 동안 주말과 공휴일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군은 지난 3월 1일부터 농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에 대응해 휴일에도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인의 작업 일정 부담을 줄이고 영농 효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휴일 운영은 진안읍에 위치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702-30)에서 실시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특히 이번 휴일 운영은 농업인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바쁜 농번기 일정 속에서도 보다 유연한 영농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휴일 운영은 오는 12월 20일까지 계획되어 있으나, 농번기 상황에 따라 운영 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출산꾸러미 지원

진안군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마련된 기금을 활용하여 출산가정에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출산꾸러미'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출산 문제 극복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출산가정에 필요한 육아용품 종합적으로 지원해 아이를 키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산꾸러미는 핏병세정제, 젖병세척솔, 방수기저귀 가방, 쪽쪽이, 미역, 스와들수트 등으로 구성됐다. 지원대상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부로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하여 수령하면 된다.

문민수 보건소장은 “고향사랑기부로 전해진 따뜻한 마음이 출산가정에 큰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출산 축하 분위기를 조성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